

잡아함44. 계착경

날짜: 12월 27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25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만일 마음을 내면 얄매이게 되고, 마음을 내지 않으면 얄매이지 않느니라.

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. 내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.

‘마음을 내면 얄매이게 된다’는 것은 무엇인가?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못한 범부들은 색의 집착 · 색의 소멸 · 색에 맛들임 · 색의 재앙 · 색에서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을 사랑해 기뻐하고, 찬탄하고, 취착하며, 색에 대해서 ‘이것은 나요, 내 것이다’고 하며 그것을 취한다.

그것을 취한 뒤에는, 그 색이 만일 변하거나 달라지면 마음도 따라 변하고 달라진다. 마음이 따라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곧 거두어 받아들이는 마음에 머무르게 되고, 거두어 받아들이는 마음에 머무르기 때문에 곧 공포 · 장애 · 걱정하는 생각이 생기나니, 그것은 마음을 내어 얄매였기 때문이니라.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나니, 이것이 ‘마음을 내면 얄매이게 된다’는 것이다.

‘마음을 내지 않으면 얄매이지 않는다’는 것은 무엇인가?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색의 집착 · 색의 소멸 · 색에

맛들임 · 색의 재앙 · 색에서 벗어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안다.
그것을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사랑해 기뻐하거나 찬
탄하거나 취착하지 않으며, 나와 내 것에 얹매여 취하지 않는
다.

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색이 혹 변하거나 달라지더라도 그 마
음은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고, 마음이 따라 변하거나 달
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얹매여 거두어 받아들이는 마
음에 머무르는 일도 없으며, 거두어 받아들이는 마음에 머무
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공포 · 장애 · 걱정하는 생각이
생기지 않나니, 그것은 마음을 내지 않아 집착하지 않았기 때
문이니라. 수 · 상 · 행 · 식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나니, 이것이
이 ‘마음을 내지 않으면 얹매이지 않는다’는 것인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
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여 행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